

최종편집 : 2021-10-15 10:33 (금)

로그인 회원가입 BBS불교방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세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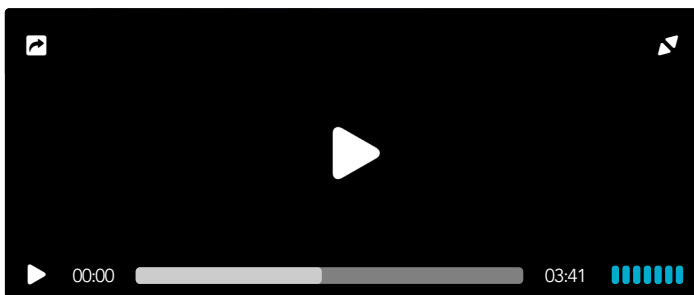
전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스포츠 불교 국제 전국 | BBS 인터뷰 BBS 칼럼 BBS 취재수첩 BBS PLAZA 인사/부고



홈 > 불교

'사성암의 가피' 구례에 전한 순례단의 희망 메시지

김호준 기자 | 입력 2021.10.03 09:50 | 수정 2021.10.04 02:09 | 댓글 0



영상이 뜨지 않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108천리순례가 순조롭게 시작된 가운데 발길 닿는 곳에서 희망과 치유의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순례단은 지난해 극심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지나며 주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

앞·뒷사람의 랜턴이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순례단이 지나는 전남 구례에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행선 모습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최신뉴스

- 정치 | 원희룡, 김만배 영장기각 "검찰 수사 의지 없어, ...
- 정치 | 이재명 "차이 넘어 더 큰 힘으로"...민주당 원팀' ...
- 경제 | 정부,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 지속...경제 회복...
- 사회 |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인허가 ...
- 사회 | 정부,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전망

포토뉴스



인기뉴스

- 1 이완구 전총리 별세
- 2 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여부 곧 결정
- 3 사적모임 인원 완화...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
- 4 [코로나19]목포·구례 초중학생 9명 집단감염...추가 확산
- 5 [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구례 지역은 지난해 폭우로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천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나는 등 최악의 수해를 입은 곳입니다.

수마가 활권 상처 곳곳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너진 제방은 복구됐지만 주민들은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구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악몽같은 침수 상황에서 주저없이 달려온 화엄사 스님들의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도운스님 / 구례 다문화센터 센터장] "수해가 발생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화엄사 교구장 덕문스님과 소임자 스님들 또 많은 스님들 40여 명이 바로 내려와서 수해 피해를 함께 복구할 수 있는 힘을 모아줬습니다 ... 공공기관들도 지금 다 복구되고 있진 않지만 열심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가파른 산 정상 암자까지 올라간 소 이야기는 지난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웃 마을 소들은 2천마리 가까이 희생됐지만 사성암 인근 마을 소들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김명현 / 구례 죽면마을 이장] "아침에 물이 차오르는 거 보고 소 키우는 사람과 상의해서 소 막사에 물이 들어오려해 바로 소를 내 몰았죠. 도로로 나오니까 소가 자동적으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성암 가피담에 더해 정신적 공황에 빠진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는 지역 사찰의 힘이 컸습니다.

6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7 경북지역 0~5세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법제화



8 [코로나19] 18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BBS칼럼

전경윤의 '세상살아'

전영신의 '사산'

신두식의 '공감노트'

배재수의 '크로키'

이현구의 '스윗 스팟'

선임기자 칼럼 NEW

월 1만원 이상, 방송포교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가입문의 1855-3000

ARS 후원 060-800-8000
(한 통화 5천원)

[김명현 / 구례 죽연마을 이장] "(봉사활동을) 많이 해줬죠 불교에서도. 화엄사에서 식사대접을 5일 시장에서 매일 하듯이 했어요... 짜장면도 와서 해주고 더운데 고생많이 하셨죠 스님들도."



순례단은 이런 이야기를 간직한 지역을 지나며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통과 교감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관건이란 것을 새삼 느낍니다.

행선 같은 새로운 수행문화로서 공감대와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호산스님 / 108천리순례단 총도감] "꼭 말을 많이 해서 전달이 되는게 아니라 우리는 실천으로 한마디 말하지 않고 묵언을 하면서 한발 한발 걷는 모습이 뭔가 사부대중에게 보여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국난을 극복하는 것에 저희들이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속된 일정이 다리를 무겁게 하지만 화엄사와 천은사까지 거치면서 마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기암절벽의 천년고찰 사성암에서 순례단은 생명을 존중하는 자비정신을 되새기며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108천리순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추천
0



반대
0

당신만안본뉴스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혹에 대한 ...
'큰스님의 아멘' 각계 반향... "벽을 허무는 큰 울림"
[교육기획] "선생님! 고맙습니다"...경기 화성 남양고
[코로나19] 서울 노원구 병원 관련 28명 확진...병원...
국민의힘, 오늘 광주에서 첫 TV토론..5,18묘역 참배도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 강력 추진"
윤건영 "이준석 대표, 여당(이재명-이낙연) 이간질 그...

이낙연 전 대표 "결선투표 필요, 대장동 의
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지켜봐야 한다는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주요기사



원희룡, 김만배 영장기각
"검찰 수사 의지 없어, 김오



이재명 "차이 넘어 더 큰 힘
으로"...민주당 원팀' 의지



정부, 대면서비스업 등 불
확실성 지속...경제 회복속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
청 압수수색...인허가 자료



정부, 다음 달 1일 위드 코
로나' 전환 전망



노규덕 16일~19일 방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연쇄

BBS NEWS

매체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BBS불교방송(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 대표전화 : 02-705-5114 | 팩스 : 02-705-5229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재수
제호 : BBS NEWS | 등록번호 : 서울 아 01259 | 등록일 : 2010-06-03 | 발행일 : 2001-09-01
발행인 : 박형수(중하) | 편집인 : 전경윤

BBS NEWS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BBS 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si.co.kr

POWERED BY **NP**